“올해는 안와도 되니 건강하게만 잘 지내길…”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채정순(59)씨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석을 쇠기로 한 서울의 딸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추석맞이’ 김광근·채정순씨 부부

3대 모여 시골집서 북적였던 명절 분위기는 옛말
손주 출산에도 병원출입 못해 영상통화로만 안부

“라임아! 정우야! 잘 지내제? 할머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싶어서 어쩌누. 손이랑 잘 씻고 항상 건강해야 한다잉.”

추석 연휴를 앞둔 28일 광주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는 60대 부부가 휴대폰 화상통화를 통해 서울에 살고 있는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며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손주들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자니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광근(61)·채정순(59)씨 부부와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추석은 각자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김씨 부부는 올해 코로나로 쓸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함께 고향에 모이고, 출가한 자녀들이 집으로 오지만, 올해만큼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가족 모임을 전면 취소했기 때문이다.

8남매 중 셋째 아들인 김씨는 영광 백수읍에서 태어나고 자라 결혼 이후에는 광주에 터를 잡았다.

영광에서 농사를 지어 온 김씨는 옛 고향집을 거처로 삼게 되면서 이 곳은 8남매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가 됐다.

영광 고향집 마당에서 명절이면 수도권 등에서 살던 형제들이 모두 내려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성묘를 하는 등 대가족이 한데 모여 명절을 지냈던 것이 전통이었다.

올해 설날까지만 해도 조심스레 가족 모임을 가졌으나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특별 방역기간 발표에 따라 가족·친지 직접 대면을 자제하기로 했다.

아쉬운 마음에 통화와 함께 특산품 선물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가정 내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올해는 어린 외손주들과는 아쉽지만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전하기로 했다.

김씨 부부는 슬하에 딸 셋,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데, 첫째부터 셋째 딸 모두 시집을 가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자녀들 터전이 대전과 서울 등지여서 명절은 이들 부부에게 그리운 자녀들을 다함께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딸·사위들과 외손주들까지 북적북적 한 데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던 때가 이제는 옛말이 됐다.

외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손주 입에 넣어 주던 것도 그리운 일이 됐다.

최근 김씨 부부는 셋째 딸이 추석을 앞두고 출산을 해 다섯째 외손주를 보는 경사를 맞았다.

힘든 출산 과정을 견뎌낸 딸에게 달려가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고 갓 태어난 막내 손주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보호자 1명 외에는 직계 가족이어도 출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부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단출하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가족을 넘어선 지역사회 전반의 약속이라고 여기며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가족·친지들을 보고 싶지만, 전화와 영상통화로라도 안부를 묻는 것이 이번 추석을 맞은 최선의 방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씨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종결돼 막내 외손주 돌때는 다 같이 안전하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광주·전남 매년 피해액 급증…“불분명 문자 클릭 금지”

추석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매년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고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28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은 2018년 37억원, 2019년 101억원, 올해 8월까지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700만원, 6억6천만원, 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전남지역은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욱 활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여수경찰서는 전날 저금리 전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에 건넨 혐의(사기)로 A씨(62)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건넨 2천350만원을 가로채려 하는 등 광주·나주·창원 등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피해금 1억8천487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하고 1억6천여만원을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 형태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5일 광주 북부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B씨(21)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광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억677만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총책으로부터 시내·외 출장비 명목으로 건당 최대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목포에서는 수사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을 찾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며 피해자의 집에서 3천만원을 훔친 1명이 검거됐다.

지난 7월 곡성에서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인 뒤 위약금과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됐다.

전남 경찰은 올해 대면 편취범 69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분명한 문자에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며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기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광주 시민단체, 비위 기초의원 7명 수사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 기초의원 7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자치21과 공무원노조광주본부, 진보연대,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은 28일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지방의회 비위 의원 수사 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대상은 서구의원 1명, 북구의원 6명이다.

단체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위 혐의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광주 기초의원 7명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 수의계약과 관련한 공무원 대상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함께 진행 과정이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환준 기자

공공아동보호체계 내달 가동

다음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나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을 맡아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일부 지역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껏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와 상담 등은 민간기관에서 대부분 맡아왔다. /연합뉴스

“급식노동자 감축·돌봄교실 민간위탁 반대”

광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8일 광주시교육청의 급식노동자 감축과 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애초 급식실 인원 50여명을 증원하려다가 24명을 증원해 2학기부터 학교에 배치했으나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내년에는 12명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감축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장휘국 시교육감은 지난 10여년간 학부모들이 호응했던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아닌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장 교육감의 보수화·관료화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권범 기자

차 훔쳐 타고, 지구대 찾아가 “차 키 주웠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타고 차량에 있던 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15분께 광주 북구에 차주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보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는 차량 열쇠를 들고 주변 지구대를 찾아가 ‘차 키를 주었다’며 가져다줬다. 검거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최환준 기자

마른하늘에 날벼락(?)

떡락어

○…광주 한 공사현장에서 땅꺼짐(지반침하·싱크홀) 복구공사를 하던 60대 남성이 돌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

○…28일 광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A(68)씨는 이날 오전9시31분께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앞 보행로 약 2.5m 깊이 지하에서 공사를 하던 중 지상에서 떨어진 조경석에 오른쪽 다리가 매몰된 것.

○…소방 관계자는 “지난달 쏟아진 집중 호우로 지반이 침하된 장소를 공사하던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가 무릎 열상과 고관절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안도. /김동수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無 감미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